

2022 열린 인생 13.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반복'의 능력

[시편 1:1-2]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복은 무엇인가?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 있는 존재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를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했다.

[창세기 1: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바라크'라고 한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라는 뜻이다. 바로 이 점이 세상의 복과 다른 개념이다. 세상의 복은 내가 얻을 어떤 것을 말한다. 복을 주는 주체보다는 필요한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현세적, 물질적 개념). 그런데 '바라크'라는 복의 의미는 물질이 아니라 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복 자체보다는 복을 받을 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개념이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창조주, 토기장이의 작품이다.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은 자이고 은혜를 입은 자이다.

하나님 앞에 '바라크'해야 한다. 그 상태가 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 왜 다윗이 복과 은혜를 입었는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가는 곳마다 복이 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2장의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바라크'하셨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6-7]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9-11]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바라크'(복)가 되신 예수님을 보라. 9절에 보면 '이러므로'(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마귀는 왜 저주의 존재가 되었는가?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복과 저주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달려 있다.

2. 시편 1편

[시편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 시편 1편의 복은 '아쉐르'이다. '아쉐르'는 '뚝바라다, 뚝바로 걸어가다, 트랙을 따라가다, 경계선을 넘지 않다'라는 뜻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쉐르는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신약의 8복과 같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편 1편 1절처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분별하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않았다'이다. '않았다'는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꾀), 죄인들의 길(방법), 오만함(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오만이다)으로 습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무너짐

죄는 '바라크', '아쉐르'의 복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다.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내 마음은 악인들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지만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4. 반복을 통한 세워짐

[시편 1: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에 대해 성경의 답은 여호와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다. 복 있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다. 인생은 무엇을 반복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광야에 만들어지는 길(데레크-오솔길)은 반복해서 걸어감으로 만들어지는 길이다.

'하나님의 시간'

시간은 공간을 채운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면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해진다.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하다. '반복'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삶의 공간에 반복해서 채우는 것이다.

매일 - '주야'의 개념 / 일주일 - 안식일의 개념 / 달과 년 - 절기의 개념.

하나님은 위의 세 가지 시간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공간을 채우신다. 안식일 - 이스라엘(안식일을 지키니 실제로 도시에 차가 없다. 차가 없는 도로를 보며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을 보며 '절기'의 실재를 보게 된다. '절기'는 '기억'이다. 하나님은 각 절기마다 의미를 주셨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무너진 내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은 '반복'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에 길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반복'이다.

'신명기' -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지키라.

[신명기 6:5-9]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
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돌판에 글씨를 새기려면 반복해서 써야 한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다. 교육은 '반복'이다. 반복해야 새겨지는 것이다. 교육의 핵심은 반복이다. 깨달음이 아니다. 반복해서 새겨야 내 것이 될 수 있다. 깨달음에 그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오빠, 언니, 사역자는 될 수 있어도 사람을 세우는 오빠, 언니, 부모, 형제, 사역자는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앉았을 때, 길을 갈 때(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장성한 청년,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신다(반복이다).

5. 반복의 훈련

(1)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로 말씀이 활성화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을 통독하라.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길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마음에 길을 내야 한다. 그곳에 지속적으로 말씀의 강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1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으라.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온다. 다니엘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영향력의 삶이 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새겨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실제적인 일상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가 떠오르게 된다. - 계시와 비전

흐름이 만들어지고 전체가 보이면 총론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론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로 이 단계는 파는 단계다. 연구하는 단계다. 하나님이 집중해서 파게 하는 영역이 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곳을 깊이 파게 되는 것이다. 지혜와 명철이 오는 단계다. 계시가 증폭되는 단계다. 계시가 증폭된다는 것은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며 확장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다. 예언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먼저 선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방어적 성도가 아니라 공격적 성도가 되는 것이다.

다니엘의 삶은 반복이다. 그런데 그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계시를 풀어 주신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신다. 왜 그럴까? 가장 높은 단계의 계시가 풀어지는 이유는 바로 다니엘의 반복에 있다. 오늘 성전으로 나오라. 주야를 세팅하라. 안식일을 세팅하고 절기를 세팅하라.